

남구, 재난대처 정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겨울철 대설·한파대책서 두각 특교세 3억5천만원 확보 사전대비·안전정책 구성 돋보여...지난해도 3관왕 달성

광주 남구는 최근 정부 주관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 및 재난관리 평가에서 호우와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각각 우수기관에 연달아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5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실

시했다. 평가는 사전 대비실태 점검 항목과 인명 및 재산피해, 대응조치 등의 지표에 따라 진행됐다.

남구는 개인 역량과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 구성원의 지식 및 기술 활용, 구성원간 상호협력 체계 구축, 단체장 리더십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18년에 실시된 2017년도 겨울철 자연 재난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

된데 이어 2년 연속 이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다. 남구는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 교부세 1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행안부에서 중앙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26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재난관리 평가'에서도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행안부는 개인과 부서, 네트워크, 기관 등 4개 분야 42개 지표에 따라 재난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해 안전관리 체계, 재난 대응조직 구성 등 재난관리 핵심

역량과 재난 안전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남구 관계자는 "각종 자연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집념과 노력 덕분에 재난 대비 및 대응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정부 주관 2017년 겨울철 자연 재난대책 평가와 2018년 여름철 자연 재난대책 평가, 2018년 재난관리 평가에서 각각 우수기관과 최우수기관을 차지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바 있다. /문철현기자



치매예방 특강 광주 남구는 지난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체조실습 등 '치매예방 특강'을 실시했다. /광주남구 제공

사회적경제기업 수익 안정화 나선다

북구, 브랜드·기술 개발, 시제품 홈페이지 등 지원

광주 북구가 민생경제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이는 최근 광주시가 실시한 '2019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 결과에서 관내 11개 사회적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비 3억 5천900여만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 기술개발, 시제품 홈페이지 제작, 홍보 마케팅, 교육훈련비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한 수익구조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지난 17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1개 사회적기업(인종 8, 예비 3)과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연간 지원한도(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업개발비 지원이 구체적인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업무지침과 보조금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정지원 사업 안내, 컨설팅 등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 ▲사회보육료 지원 사업 ▲마을기업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최환준기자

북구, 찾아가는 학습배움터 강좌

광주 북구가 강사와 수강생이 청년으로만 구성된 교육 강좌를 운영한다.

북구는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 청년들에게 강의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소규모 교육 강좌인 '찾아가는 청년 서로서로학교'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청년 서로서로학교'는 북구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책으로 5명 이상의 청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에서 강좌를 신청하면 청년 강사가 찾아가 강의를 하는 방식의 강좌이다.

운영 강좌로는 ▲K팝 안무배우기 ▲마음일기장 ▲융합인재 양성과정 ▲대한민국 영도 역사교육 ▲미술 심리치료 ▲바리스타 카페운영 ▲디자인 배우기 ▲삶을 위한 그림 ▲시의 실제와 허상 등 9개 강좌이다. 강좌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1일 2시간 이내 최대 2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최환준기자



공원환경정비 고사목 제거 광주 북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관내 일곡동 근린공원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도시미관 저해와 매개충 서식처가 될 수 있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남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실시

광주 남구는 정부의 자치분권 기조에 발맞춰 주민들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구정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주민참여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주민참여 포인트제는 구정 정책수립 및 시행, 평가 등 행정의 모든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해 일정 점수 이상에 도달하면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주는 정책 제도이다. 일례로 정책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구청에서 열리는 설명회 및 공청회, 교육 행사 등에 참가하면 참가 횟수별로 일정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문철현기자

북구 '주민 솜씨자랑' 특별기획전 개최

평생학습·동행정부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등 100여명 참여

광주 북구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주민참여 특별기획전을 연다.

북구는 오는 24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거시기홀에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제8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민 솜씨자랑' 주민참여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난 4월 중외공원을 광주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립미술관, (재)광주비엔날레 등 6개 기관이 맺은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별기획전에는 북구 평생학습 특화사업 '인생배움터 무들학교' 9개 캠퍼스와 용봉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전시 작품으로는 유화, 퀼트, 자수, 손뜨개, 도자기, 홈패션 소품 등 그림과 다양한 생활 공예품 375점을 전시한다.

특히, 북구는 오픈식이 열린 지난 14일 전시장 입구에서 5월 광주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 나눔 행사와 북구 대표 특산물인 지산딸기 시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특별기획전은 지역 내 문화예술 시설을 공유해 그동안 수강생들이 배우고 익힌 실력을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갖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주민들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 평생학습이 문화예술로 이어지는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기획전 관련 문의는 북구청 문화관광과로 하면 된다.

한편, 2019 제8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하게(humanity)'라는 주제로 9월7일부터 10월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디자인센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환준기자

나라사랑 '현충시설 서포터즈' 구성·운영

남구, 매월 셋째주 수요일 관리·탐방객 안내키로

광주 남구는 주민들이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기리고, 관내 현충시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현충시설 관리 및 탐방객을 안내하는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남구는 19일 "관내에 소재해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라사랑과 효국 보훈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충시설 서포터즈'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최근 관내 주민 12명을 현충시설 서포터즈 회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오는 연말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관내에 소재한 현충시설

에서 주변 정화활동 및 탐방객을 대상으로 현충시설의 유래 등 안내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관내 현충시설로는 수피아여중·고 내에 광주 3·1만세운동 기념동상과 3·1운동 만세시위 준비지를 비롯해 광주공원 내 의병장 심삼일 순절비 및 현충탑, 사직공원 내 충혼탑 및 효국 무궁수훈자 전공비 등 총 6곳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6곳의 현충시설에는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과 의병 활동, 여순항쟁 및 6·25 전쟁 등 국가적 혼란 시기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인물들의 혼과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의 상처가 새겨져 있다. /문철현기자

제일오피스텔,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23-2번지 (구, 수기동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즉시입주가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억4000만원
- 급매 - 1억10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조정가)

문의. 010-6834-7400